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

21면에서 계속

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져왔습니다.
 엇그저께도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그냥 젖는 겁니다. 이게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 못사는 사람이 이삿짐을 그 차에다 실어가지곤 거기에 사람도 타고 이래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 하는데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날더러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주라'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텔레비전에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했었는데 이삿짐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잘 갖다 놓고 나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주는 겁니다.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질문자(男):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 삼아서 이사에 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가난한 이사이는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사 가는 것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이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이제 딱 맡겨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나? 갈래? 안 갈래?"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다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게 잘못 맡겨졌는가? (대중 웃음) 그 여러 가지로 좀...

▲스님: 맡기는 도리도 그렇습니다. 맡기지만 해서도 이게 딱! 침을 딱!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 됩니다. 정히 급하면 '당신만이, 당신만이' 하게 할 수 있고,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맡기세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그대로 놀러있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하고 잘 생각해서 놀러오고 싶으면 그냥 놀러오세요 됩니다.

오히려 가는 거보다도 맥에서는 놀러있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대중 웃음) 이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돌보아주니까 말입니다.

▲질문자(男):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7월에 우연히 『도(道)』라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무(無)』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묻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개구리 찾아 나선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엄마 곁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주인공을 몰라서 그런지 또는 아이들이 주인공을 몰라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무슨 애들이?

▲질문자(男): 대구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아마 100일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팔자나 운명이나 하는 거, 또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하는 것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부. 물론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통 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모두가 잘 알아듣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대중 박수)

▲질문자(女): 전번에 스님께서 KBS에 오셨을 때 먼 빛으로 비었고 가깝게 봐요니까 너무 감개 무량합니다.

▲스님: 예.

▲질문자(女): 다름이 아니고요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한 10개월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런데 제가 금방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제가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불에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싹 스쳐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이렇게거든요.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뭘 태웠다고요?

▲질문자(女): 저 바퀴벌레요. 그런 걸 제가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머리에 스쳐가는...

▲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지요. 하하하. 그 인간 양심인데,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들한테 쓰러짐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대중 박수)

풀한 포기, 지렁이 하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전부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요.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중에는 혹시 스님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전부 믿는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연 따라서 온 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 소리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불들어서 방에다 얹혀놓았는데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다주니까 코를 막고 죽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질문자(女): 저는 스님을 뵈게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남편이 어찌다가 그런 직업을 붙들었어요.

▲스님: 무슨 직업요?

▲질문자(女):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가 내놓거든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제껏 그런 일을 해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걸려요. 저는 통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돼지 새끼가, 모습을 돼지보다가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 외려 잡은 것이 더 무수상보시(無住相施)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생각 차이라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깐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도 영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질문자(女): 장어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스님: 장어 같은 거 잡으셨습니까, 어디? 하하하.

▲질문자(女):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고아서...

▲스님: 예, 고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 거를 토막 칠 때에 토막 칠 때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건 전부 몰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절대로 산 거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을 보면 산 짐승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갖다가 물씩 셋씩 정신병자로

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천도를 시켜달라는 등, 뭐 환생을 시켜달라는 등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처리를 해주실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세요.

내가 애들더러는 그렇습니다. "친구야! 이 친구만이, 네 친구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 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하는 거 일러준 대로 하세요.

또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그럼, 그만하면 한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한 스님께서 아마 3월달이 생신인데 어느 날인지, 그것도 이제서 너무 오래라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는 못했지만 모여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끼 눈을 왜 띄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를 더하고 털어도 없이 먹어서 싸를 띄우지 못하는가? 셋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르네
 대장부의 실림실이가
 한 손 들어 하늘을 꿰어 들고
 한 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떼어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더랍니다. 하하하. 그럼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제쳐버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몰라서 지 않는 답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하하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깐 모두 도인들만 계시 모양이야,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며) 오다음에는 내가 설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정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몰라서 지 않는
 답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女):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딴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하.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지요. 영은, 이 영은이라는 건 그냥 백, 이백,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거는 무심(無心)의 도리, 도법이기에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일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



외국 방문객에 2만인원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역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설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 33층의 불사리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썰바위 전설 (충남계방문역계 3710 지경)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썰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썰바위)이라 불렀으며, 바위에서 권적외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 (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바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나눔담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돌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돌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